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24	접수년월일	2007. 4. 18
청 원 인	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장 이명자 외 13,453인		
소개의원	김 기 성 의 원 (한나라당, 강북구 제4선거구, 보건사회위원회)		
건 명	학교법인 오산학원(창문여자중고등학교) 이전에 관한 청원		
소관위원회	도시관리위원회		

요 지

- 학교법인 오산학원 소유인 강북구 번동 산 28번지 약 24,000평은 용도지역상 1종 주거지역,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창문중고 이전과 자립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 설립부지로 이용함으로써 '강·남북 교육 균형발전'을 이루고, 강북지역민의 교육적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청원임
- 학교법인 오산학원 창문여자중·고등학교의 현재 면적은 약 5,400평(14,003㎡)으로 학교시설 11개동이 밀집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며, 학교시설은 35년이 경과함으로써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, 주변 환경은 뉴타운 축지지구로 지정되어 소음과 교통소음으로 학교 수업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음.
- 학교이전을 통한 학교의 변화와 발전은 본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'강·남북 교육 균형발전'이라는 서울시정 공약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모범적이고 실천적인 답이 될 것이며, 강북지역민의 교육적 민원에 대한 진정 명분 있는 해소책이 될 것임.
- 학교이전 예정지에 대한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학교이전이 이루어지면 본 학원이 지향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실현과 21세기 복지사회와 걸맞는 나눔과 조화를 실현하는 성숙한 시민을 육성하고자 함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